

허억, 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공기를 반, 물을 반 머금자 강제로 입이 다물렸다. 들이친 물이 나를 우악스럽게 흔들었다. 하늘로 손을 뻗었지만 몰아치는 파도 사이에서 나는 종이짜만 못했다. 또다시 휘청거리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파도는 아이처럼 웃으며 다시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실 달린 인형처럼 팔다리를 휘저었다. 어색하고 느릿한 몸짓 주변으로 공기 방울이 피어올랐다. 수면 위에서 파고드는 빛이 너울거리며 주변을 비쳤다. 무대는 완벽했다. 하지만 파도는 제 장난감의 춤사위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애가 탔다. 더욱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팔을 휘젓고 발을 박차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파도가 눈을 감았다. 이 이상 볼 필요 없다는 선고였다. 바다가 파도에게서 나를 넘겨받았다. 손안에 쥔 나를 끌어당겼다. 이번엔 그의 안으로 깊게, 더 깊게.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의식의 전원이 켜졌다. 살았다. 바다가 나를 풀어준 것일까. 절대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굳 것 치곤 다행스러운 결말이었다. 눈을 떴지만 잘 보이지 않아 주변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기절한 탓인가. 도움 되지 않는 눈을 감아버렸다. 주변을 확인하는 건 조금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어 보았다. 폐가 조금 아렸지만, 다행히 속에 물이 찬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입안은 여전히 소금 맛이 감돌았다. 나는 침을 짜내어 삼켰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 세 번 정도 반복했다. 짹짹함은 여전했다. 바다의 손길처럼 끈덕지게 혀에 들러붙었다. 입맛을 다시고 상체를 일으켰다. 머리가 멍하니 울려 그대로 잠시 기다렸다.

두통은 금세 가셨다. 웅웅 울리는 느낌은 남아 있었지만,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었다. 멀쩡하다는 것이 확인되니 그제야 주변의 상황에 신경이 쓰였다. 다시 눈을 떴다. 여전히 어두웠으나 몇 번 눈을 깜빡이니 나의 몸 정도는 볼 수 있었다. 손을 살짝 쥐었다 펴고는 불은 손가락으로 주변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표면이 느껴졌다. 침대인가. 누군가가 나를 구해 병원으로 옮겨진 모양이다. 나는 전신을 휘감는 탈력감에 다시 몸을 뉘었다. 절로 의식이 다시 멀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시간을 보기 위해 주머니와 주변을 뒤적여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난 탓에 머리가 울렸다. 그제야 내가 바다에 빠졌었다는 것을 상기했다. 바다가 가져간 모양이었다. 목숨값치고는 싸게 먹혔다고 생각했다.

나는 상태도 더 확인해볼 겸 벽에 손을 짚고 주변을 더듬으며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왔다. 몸을 움직일수록 정신이 점점 맑아졌다. 시험 삼아 한 걸음 걸었다. 조금 흔들렸지만 무난하게 중심을 잡았다. 다음 발을 움직였다. 또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걸음을 걷고 나니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다. 깨어난 지 시간도 꽤 흘렀다.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의문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벽의 조금 높은 곳에서 붉은 등이 빛나는 게 보였다. 그쪽으로 휘청휘청 걸어가 가까워서 확인한 등은 별로 특별할 게 없었다. 빛이 강한 것도 아니라 시야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부가 붉은빛을 받아 정육점에 전시된 고기처럼 보였다. 나는 불길한 생각을 파드득 털어냈다. 전등 아래로 시선을 내리니 벽 사이에 틈이 보였다. 자세히 보기 위해 얼굴을 들이민 순간이었다.

위잉- 덜컥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났다. 붉은 전등이 두 번 점멸했다. 틈이 갈라져 벌어졌다. 문이 열린 듯한 모양새였다.

통로를 앞두고 있으니 망설여졌다. 당연한 의문이 들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병원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실내인 것을 보아 누가 나를 구해 안으로 옮겨놓은 것은 확실했다. 그렇다면 바닷가의 어느 집인 걸까. 하지만 가정집이라 하기엔 저 붉은 안내 등이 너무 안 어울렸다. 계속 생각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한 답이 없었다. 나는 문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고요했다. 바깥을 살펴보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이쪽에도 같은 높이에 달린 붉은색 안내 등과 들쭉처럼 띄엄띄엄 배치된 푸른 등뿐이라 어두운 건 마찬가지였다. 안전성을 저울질했다. 이대로 방금 있던 공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길을 찾아볼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급하게 무게 중심을 옮겨 넘어지는 건 면했다. 등골이 서늘했다. 아직 상태가 별로였나, 그렇다면 괜히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좀 더 쉬면서…… 기다려 보자.”

일부러 소리 내어 말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다리를 짚어 지탱하던 중, 뒤에서 소리가 났다. 들어본 소리였다. 발로 조그만 진동이 전해졌다. 급하게 뒤돌아 문을 확인했다.

위잉- 덜컥

그리고 쿵. 닫혀버린 입구를 허망하게 바라봤다. 문을 두들기고, 붉은 등 앞에

손을 흔들고, 이리저리 움직여 봐도 요지부동이였다. 안에서만 열리는 문이었다. 그렇다면 낭패였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대로 문에 등을 대고 스프룩 주저앉았다. 불안감이 열게 덧씌워졌다. 괜히 문을 몇 번 쳤다. 등으로 울림이 전해졌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냉정했다.

나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기억 상자를 뒤지며 평화로운 감정을 뽑아내 뇌 속을 가득 채웠다. 더는 설 자리가 없어진 불안이 복도로 밀려났다. 그 속에서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따라붙는 시선이 끈끈했다. 끝끝내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맞대자 스프룩, 어둠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불안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그 눈높이였다. 검은 눈 한 쌍이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텅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근육 때문에 발이 꼬였지만 빠르게 자세를 잡았다. 몸을 긴장시키고 뒤로 두 발 물러났다. 반사적인 작용이었다.

“누구십니까?”

“제가 여쭙 말입니다.”

상대는 멀거니 서 있었다. 눈에서도, 표정에서도 읽히는 게 없었다. 하물며 긴장도 안 한 것 같았다. 말투마저 평이했다. 이 침착한 괴한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순간 그의 흰 가운이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이해가 갔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반쯤 확신을 담아 물었다.

“혹시 의사십니까?”

“아뇨,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요?”

저절로 반문이 나왔다. 그럼 이곳이 병원도 아니고, 연구소라는 뜻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연구하는 시설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익사하실 뻔했습니다.”

여상스러운 목소리 톤에 조금 열이 뻔쳤다. 내가 죽을 뻔한 건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다만 저렇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실이던가. 남이 죽는다는 내용을.

“네, 압니다.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제가 구하진 않았습시다만....”

그가 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구했다는 이야기일까. 나는 잠자코 기다렸

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배려심 있고 친절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저희 시설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채집용 캡슐이 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멀거니 그를 응시할 차례였다.

“채집용 캡슐이요?”

“네. 운이 참 좋으셨습니다.”

저 높낮이 없는 어조 때문에 저게 진심인지 비꼬는 건지 헷갈렸다. 살아온 경험 탓인지 비꼬는 것에 더 가깝게 들렸지만. 입꼬리가 씩룩거렸다. 나는 애써 화를 억눌렀다.

“채집용 캡슐이 뭘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가 입을 다물었다. 의아해졌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는 건가? 침묵이 흘렀다. 상대는 뒤늦게 말을 덧붙였다. 조금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초음파를 이용해 생물을 감지 및 추적하고, 생포하는 캡슐입니다. 연구와 수집이 주된 용도이고, 채집에 성공하면 이곳으로 자동 복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목적과 작동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종류로 나뉩니다. 당신은 해양 생물 중 크기가…”

“네.”

“…소형에서 중형 사이인 공기 호흡 생물을 채집하는 용도의 캡슐에 잡혔습니다.”

잠시 말이 끊어진 게 수상했지만 따질 여가는 없었다. 나를 바다의 손아귀에서 빼 온 게 무슨 캡슐이라니.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야기였다. 애써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잘 될 리가 없었다.

“소형에 더 가깝긴 합니다.”

“예?”

“캡슐이 목적으로 하는 채집물 크기가요.”

띄엄띄엄 덧붙이는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무슨 의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내 표정을 살피던 그가 반쯤 몸을 돌렸다.

“이동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죠?”

“계속 서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상관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미건조한 한 마디가 따라붙었다. 나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 피로감이 질질 따라붙는다.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걷는 게 훨씬 나았다. 그 목적지가 설 수 있는 장소라면 더더욱. 내가 가시죠, 라고 작게 내뱉자 그에 기민하게 반응한 그가 곧장 나를 등졌다.

“따라오십시오.”

걸음걸이가 꽤 빨랐다. 성큼성큼 거리를 벌리려 드는 탓에 지친 다리를 억지로 채게 눌렀다. 모퉁이를 돌고 또 직진했다. 가빠진 숨을 숨기기 바쁜 나와 다르게 그는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평온한 낯썩을 보니 울컥 또 화가 났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피곤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힘겨울 일은 없었을 텐데. 속으로 변명을 뱉으며 이를 악물었다. 자꾸만 엇갈리는 걸음도 내 속을 진탕 뒤집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금방 망을 벗어난 상태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 이 복도도, 건물도, 나를 구했다는 그 채집용 캡슐이라는 물건도 모른다. 안개 속의 바다를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키를 잡는 법도 모르고, 물에 꽂아 넣고 저을 노도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복도의 미로를 헤치고서야 멈췄다. 나는 일부러 몇 걸음 뒤부터 속도를 늦췄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호흡을 빨리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원래 상태를 되찾는 데에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는 차분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그를 살폈다. 문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딱 눈이 마주쳤다. 나는 괜히 뒤통수를 매만지며 바로 섰다.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절대 힘들어 죽겠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생각보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네요.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참 고마운 소리네요, 비뚤어진 마음이 중얼거렸다. 객관적이지 못한 나의 현 상태는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의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대화가 끝나자마자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가 안으로 쪽 들어갔다. 나도 그를 따라 방 안으로 향했다. 방 안은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딱 복도 정도의 빛만 우리를 반겼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까?”

내가 있던 방을 떠올렸다. 그냥 열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센서가 제 안에 있는 칩을 인식합니다. 일부 기능은 칩 없이도 조작 가능하지만

대부분 필요합니다.”

납득했다. 연구소라 첨단기술이라도 쓰는가 보지.

“그럼 이 방 전등은 안 켜집니까?”

“켜집니다.”

그러곤 또 멀뚱히 서 있다. “켜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잠잠했다. 또 정적이다. “어둡지 않습니까”라고, 마지막으로 돌려 물었다.

“아닙니다.”

“전등을 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팟, 방 안이 밝아졌다. 갑자기 쏟아진 빛에 눈을 찡그렸다. 별 행동도 없이 켜진 불이 마치 마법 같았지만 놀라는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았다. 칩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유리로 된 벽이 줄 맞춰 나열되어 있었다. 취향에 맞춘 실내 장식일까? 그냥 무시하려다 이곳이 연구소라는 것을 떠올렸다.

“혹시 유리를 연구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유리는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유리들은...?”

“전시용 영상 출력 기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유리 벽으로 된 미로를 만들려 했다면 모를까. 나는 재차 물었다. 이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구태여 숨기는 것도 없는데 수상한 것투성이인 점에서.

“뭘 전시합니까?”

“궁금하신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을 한 번 훑 둘러보았다. 유리에 파란 홀로그램이 떠올랐다. 방 안의 모든 유리에서 나타난 홀로그램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스쳐본 모든 면이 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SF영화에서나 봤던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유리 너머의 유리, 그 너머의 유리까지 전부 푸르게 빛나는 게 장관이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 같은 감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빛나는 푸른 덩어리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게 생긴 동물들이었다. 가장 가까운 덩어리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욕심에 응답하듯 홀로

그램의 회전이 느려졌다. 덕분에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들여다본 형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고기처럼 긴 몸체와 꼬리에 돌고래의 지느러미 같은 두 쌍의 다리, 거기다 악어의 사촌 형제쯤 될 것 같은 머리까지. 틱타알릭, 언젠가 삽화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했다. 볼수록 닮았다. 나는 옆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연구원에게 내 지식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거, 틱타알릭 맞나요?”

“네.”

그는 긍정의 답을 내놓았다. 홀로그램을 이리저리 손으로 움직이던 그는 생각났다는 듯 설명을 덧붙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틱타알릭’은 물고기와 육상동물의 중간 형태를 띤 틱타알릭속 육기어류의 총칭이죠. 이렇게 확대해보면 골반 쪽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와도 다르지만, 또 사지동물과도 조금 다르죠. 이들은 고생대의 데본기 후기에 출현했습니다. 그땐 바다가 얕아서 해양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골어류와 경골어류가 특히 번성했죠. 동시대의 생물 중 잘 알려진 것으로… 실러캔스가 있고요.”

상대가 방 저편을 가리켰다. 그의 손끝이 따라가는 곳을 살폈다. 모르는 동물이 담긴 홀로그램이 널려 있었다. 일부는 동물인지도 헷갈렸다. 노래기나 전갈처럼 생긴 것들도 확대되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익숙한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다. 형상이 또렷해졌다.

실러캔스. 다큐멘터리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생물이었다. 나는 틱타알릭을 두고 실러캔스 홀로그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 기억 속의 생명체가 뚜렷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심지어 바닥을 기는 듯한 움직임까지 생생했다. 첨단기술이란.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연구소라더니 과학 기술도 대중에 공개된 것보다 발전되었나 싶었다.

전시는 시대순으로 되어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설명도 그랬다.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에 출현했다는 작은 조개들과 완족류 같은 무척추동물이나 원시 어류들은 다양하게 전시되어있었고, 간간이 설명에 사족도 붙었다. 하지만 그다음 시기라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의 생물은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에 대한 설명도 딱딱하고 강조점이 없었다. 마치 백과사전을 외워서 그대로 읊는 사람 같았다. 심지어 몇몇 전시물들은 머뭇거리다 그대로 지나치기도 했다. 그가 ‘어류 시대’라고 설명한 데본기로 들어서자 그의 설명에는 다시

활력이 붙었다. 아까 봤던 틱타알릭과 실러캔스를 지나, 허파 물고기와 같은 어류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곤충들도 보였다.

그 뒤의 석탄-폐름기의 두족류, 완족류 등의 해양생물과 비교적 적은 원시 파충류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고생대가 슬슬 끝나가나 싶었다. 고생대만 다 본 것뿐인데 방의 반 이상을 지나왔다. 심지어 남은 중생대와 신생대는 생물의 크기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 홀로그램의 수가 고생대에 비해 확연히 적었다. 아마 고생대의 생물이 연구주제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홀로그램들을 설렁설렁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럽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전시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역시 없다. ‘고생대’라고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삼엽충’ 홀로그램이. 너무 잘 알려진 생물이란 그런 걸까? 그렇다기엔 실러캔스도, 암모나이트도, 심지어 현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도 몇 있다.

“삼엽충은 연구하지 않았나요?”

“물론 연구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부 홀로그램이 한번 흔들리더니 그 모습이 변했다.

“삼엽충은 고생대에 가장 흔하고, 또 오래 생존했던 생물이어서 샘플이 너무 많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양쪽 벽면이 모두 삼엽충의 홀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부터 거의 내 팔 한쪽을 넘어가는 길이를 가진 삼엽충까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내가 알던 삼엽충이라고는 둥근 모양의 화석 사진이 다였기 때문인지 어딘가 낯설었다.

“지구상에 거의 처음 나타난 절지동물입니다. 뚜렷한 3개의 엽을 볼 수 있다고 삼엽충이라고 부르더군요. 고생대 내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화해온 생물이란 연구할 거리가 많았죠. 이곳에 전시된 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삼엽충 화석은 17000종 정도가 발견되었다 하니 실제로는 엄청 많았겠죠.”

“고생대 시대의 재미 같은 거였군요.”

“재미요?”

상대의 자연스러운 반문에 오히려 내가 당황해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의아한 눈빛이 교차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재미만큼 많았다.’라고 하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아, 아뇨.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에…….”

뒤늦은 동의를 받았지만, 괜히 무안해져 말을 흐렸다. 새로 생긴 삼엽충 홀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문득 떠올렸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당신네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군요?”

이렇게 방대하게 축적된 과거 생물들의 홀로그램과 자료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터였다. 나도 굳이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홀로그램에서 손을 뗐다. 생각지도 못한 부정이었다.

“저희는 딱히 결과를 낸 연구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거대한 시설, 그리고 축적된 자료.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이름깨나 날린 연구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가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폐쇄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폐쇄라니. 그것도 오래전에? 나는 가장 큰 오류를 꼬집었다.

“하지만 저를 잡아 온 캡슐은 작동되고 있었잖아요.”

“실수로 회수되지 못한 거였다니깐요.”

언뜻 그가 투덜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회수 담당이었거든요.”

그러곤 약간 미안한 표정을 해 보인다. 그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게다가 그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불안감도 많이 희석되었다. 무미건조하고 차분했던 그의 말투도 밝아진 게 느껴졌다. 약간의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기꺼이 그의 미안한 표정 하나만 보고 일단 화제를 넘겨줬다.

“그럼 이 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구소라면 역시 미국인가요? 아니면 중국? 유럽?”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저는 여기 잡혀 온 거나 다름없어요. 적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압니다.”

아는데 왜? 표정이 절로 구겨졌다.

“...이건 납치예요.”

“죄송합니다. 연구소의 위치는 기밀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밀 사항이요? 뭐, 여기가 국가 보안 시설, 그쯤이라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젠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 후로 어떻게 어르고 달래도 그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내가 돌아갈 수는 있는 거냐고 문자 잠깐 망설이더니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을 뿐, 이 폐쇄되었다는 연구소 자체에 대한 말은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따졌다.

“그럼 폐쇄되었다면서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남아있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죄송합니다’조차 끊어버렸다. 홀로그램을 보며 나눴던 그 많은 대화의 끝이 이런 어색함이라니. 연구한 것들을 별거 아닌 양 쉽게 보여주면서도 연구소의 이름이나 위치, 설립 목적도 알려주지 않는다.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었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한 건 저쪽이었으니까.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다가 그냥 아예 엉덩이를 깔고 벽에 등을 기댔다. 계속 노동을 강요당했던 다리가 저릿저릿 항의했다. 나는 조용히 다리를 주물렀다. 방에는 적막이 내렸다. 그는 내가 앉은 것을 보고 뒤돌았다. 이 방을 다시 둘러보는 것 같았다. 풍경을 눈에 아주 오래 담으려는 사람처럼 고개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문득 말을 뱉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뜬금없었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깨는 그 어떤 말이 자연스럽겠냐마는,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훨씬 더 어색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헛소리로 치부해버릴 심산이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5억 년 전의 자료가 상세하면 의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직하게 흘리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내가 한동안은 계속 그를 무시할 줄 알았던지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믿으면 어찌실 거고, 안 믿으면 또 어찌실 건데요.”

“예?”

“제가 믿고 말고는 상관없잖습니까. 당신이나 믿고 살면 되죠.”

과란 홀로그램에 둘러싸였을 때 그런 기분이 들긴 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 아주 오래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도 않은 생물들의 상세한 형태와 부가적이고 자세한 설명들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 많은 자료를 모았는지 신기하긴 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DNA 복원이라도 한 건지, 어딘가에 그 생물들이 아직 살아있는 건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었다. 연구원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이 이상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일 뿐이니까.

나는 이 사람의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랐으니 화를 낼 것 같긴 했다. 그뿐이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순간 황당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맞춰줬는데도 날카롭게 굴었건만, 웃으면서 저렇게 대답한다니. 진심으로 웃음의 이유를 묻고 싶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진짜로 못 믿을 만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더니, 나는 미심쩍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뭔데요.”

그가 날 당기며 대답했다.

“아쿠아스피어입니다.”

나는 앞서 걸어가는 이와 두 사람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저 확신에 찬 발걸음이 보여줄 ‘아쿠아스피어’가 뭘까. 이름만 보면 수족관 전시실에 붙어있을 것만 같은 이름인데, 아무리 그래도 연구소에서 수족관을 ‘못 믿을 것’이라고 표현하겠는가. 조금 더 생각해본 결과, 유사한 단어로 바이오스피어를 떠올렸다. 인공적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던 ‘바이오스피어2’와 비슷한 걸까? 사진으로 봤던 바이오스피어2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연구소 실내에 그런 것을 구현할 수는 없을 터. 만일 구현하더라도 훨씬 작을 게 분명했다. 바이오가 아닌 아쿠아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니 수중 생태계 같은 걸 만든 것일까 했지만, 그래봤자 떠오르는 건 역시 수족관뿐이었다.

전시실에서 아쿠아스피어까지는 그 전에 전시실로 이동한 거리의 절반 정도였다. 그럼에도 소요된 시간은 비슷했다. 지금 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속도를 늦춘 덕분이었다. 그는 이제 웃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전시실에서 또박또박 뭘갈 설명해줄 때보다 행동거지가 자연스럽고 편해 보였다.

방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심한 태도였다. 건물 안에 설치할 만한 실내 수중 생태계로 기껏해야 조금 큰 유리 수조 정도의 광경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발밑이 훅 꺼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 비현실적인 위용에 기이함마저 느껴졌다. 고개가 천천히 젖혀져 위를 향했다.

상하로 기다란 유리 수 장이 곡면 벽을 가득 채웠다. 크기부터 압도적인 각각의 유리 너머에는 명도와 채도가 다른 바다가 채웠다. 미술품 속의 바다처럼 밝은 푸른빛에 알알이 공기 방울이 박힌 곳이 있는가 하면, 검게 멈춰 서 그 속을 푹푹 감춘 심해 같은 바다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밝은 곳들에서 헤엄치는 생물들이 여럿 보였다. 나는 그중 일부를 알아봤다. 전시실에서 본 것들이었다. 죽어있던 푸른 덩어리들이 각자의 색과 영혼을 갖고 장엄 속을 유영했다.

홀린 듯 가장 가까운 유리에다가 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차가운 온도가 유리를 통해 전해졌다. 손 주변에 희게 김이 서렸다. 박하게 말하면 대형수족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유리에 해양생물을 가둬둔 것이니까. 그러나 제대로 형용할 수는 없었지만, 달랐다. 바다를 종류별로 가득 떠내어 유리관에 담아놓은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깨끗하고 신비한 바다를.

눈앞을 스쳐 지나간 형체가 녀을 놓고 있던 나를 건져 올렸다. 나는 그 검은 물체를 좇아 황급히 유리에서 떨어졌다. 삼엽충이었다. 한 마리가 옆의 암석을 타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가시를 등에 얹은 삼엽충들이 모래 바닥 위를 포르르 기어 다녔다.

“이쪽입니다.”

무언가 내 팔을 붙잡아 펄떡 깨어났다. 그였다. 끌려가다가 좀 더 보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하려 했다. 그가 나를 유리 상자 앞에 세우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요?”

“엘리베이터입니다. 타시죠, 올라갈 겁니다.”

위를 보니 똑같이 유리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뜻밖에도 이 안에 들어서니 각각의 바다 풍경이 한눈에 잘 보였다. 또 녀을 놓고 구경하다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이게 메인 연구였나요?”

“……그랬던 것 같네요.”

또 저 애매한 대답은 뭘까. 이게 메인 연구가 아니면 뭐가 메인일 수 있는

거지? 나는 정면을 보다가 살짝 내 옆을 살폈다. 말투와는 다르게 내가 온몸으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하긴,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보고 이렇게 티 나게 좋아하는데 뿌듯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누구든 그럴 테니까. 그가 물었다.

“이제 올라가도 되나요?”

“아, 네.”

“타서도 계속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웃음기가 느껴졌다. 나는 덩달아 약간 무안하게 웃었다. 내가 열심히 구경하고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럼 올라갈게요.”

“그런데 여기 버튼이 없...”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슬쩍 입을 닫았다. 전시실의 불과 홀로그램을 조작한 것과 비슷한 거겠지. 아직 이 첨단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나는 무안해져 시선을 피했고, 정면에서 아쿠아스피어를 마주했다. 곧 눈앞에 보이는 바다의 조각, 아쿠아스피어가 훨씬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어 무안함이 잊혔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구의 바다가 아름답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그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그가 낮두리하듯 말을 이었다.

“저는 지구라는 이름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물을 놔두고 굳이 땅일까. 역시 인간이 땅에 살기 때문이겠지만요.”

“아, 그래서 이름을 아쿠아스피어라고 지은 건가요?”

물의 행성.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일 만큼 푸른 행성이니 사실 그의 말대로 지구(地球)가 아닌 수구(水球)나 해구(海球)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바다는 우주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우주보다는 다가가기 쉽다는 점에서 그보다 흥미로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망원경과 카메라를 만들어 우주를 찍어본다 한들 이렇게 일부라도 담아서 직접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앞의 작은 바다들을 죽 둘러보다가 시선을 오른쪽 끝에서

멈췄다. 아주 어두운 바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간간히 불빛이 보인다 사라지길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생명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한 생김새에 흠칫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욱 경이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신비로워 보이고, 알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오랫동안 봐왔더니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아는 게 많진 않지만.”

“얼마나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가장 단순한 질문에만 말문이 막혔다. 나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다른 질문으로 말을 돌려주려 했다.

“바다가 제 우주가 될 때까지요.”

뭔가 잘못 들었나 했다.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다른 시적인 대답에 할 말이 없었다. 아무리 알려주기 싫어도 저런 대사를 하다니. 그도 말을 뱉고 난 뒤 멧쩍은 듯 불을 굽으며 변명을 덧붙였다.

“친구의 말버릇을 한 번 따라 해봤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군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오래 했어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인 대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어쨌거나 그 진절머리 나는 ‘죄송합니다’보다는 나아졌다. 나는 다시 아쿠아스피어를 보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런데 저 생물들은 전부 어떻게 구한 거예요? DNA 복원? 아니면 몇 종은 미개발 바다에 아직 살아남아 있었나요?”

마침 눈앞으로 스테타칸투스 유유히 헤엄쳐 지나갔다. 분명 데본기 말기에 출현했다는 원시 어류였다. 전시실에서 봤을 때 등허리에 튀어나온 돌기가 특이해 기억에 남았던 생물이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왔습니다.”

나는 곧장 답을 떠올렸다.

“채집 캡슐이요?”

“네.”

그렇다면 전부 미개발 바다에서 잡아 온 건가.

.....말도 안 된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아주 길고 긴 꿈을 꾸고 있다고. 생생하고 상세하지만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꿈. 차라리 진짜 꿈이었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라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내가 모르는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는 정체 모를 연구원,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는 이미 멸종한 생물들이 담긴 거대한 바다의 일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시실에서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조금 더 단호했다. 나는 펄쩍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을 뿐이죠.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대가로 곧 하룻밤의 꿈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어디까지나 제 불찰이었으니까요.”

눈치라고는 없었던 그가 내 머릿속을 읽은 듯 말했다. 이번에도 대꾸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 광경을 믿을 수 있는가. 전시실에서야 감정을 앞세워 확답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할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다시 시작된 정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영영 도착하지 않길 바랐다. 유리관의 끝이 다가올수록 아쉬움과 이유 없는 불안감, 허전함이 마음속에 점차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는 도착을 알리는 소리도 없이 안정감 있게 멈추더니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최상층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 말하며 먼저 내렸다. 나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마지못해 따라 내렸다. 그는 전시실에서와 같은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채집 캡슐을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타고 온 경로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굳이 캡슐을 이용해야 하나요? 문만 열고 나가면 어디로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소의 위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요.”

또 그놈의 기밀인가. 어쨌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뭔가 찝찝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정면에는 그동안의 벽과 분간이 되지 않았던 문들과는 다르게 중요한 곳의 입구임을 알리는 듯 커다란 문이 보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어는 전부 칩으로 한다던 그가 문으로 다가 옆의 패널에 뭔가를 입력했다. 굳게 닫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문이 가볍게 옆으로 밀려났다.

그는 익숙하게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가 만지작거렸던 패널 위에 이 방을

나타내는 듯한 문패가 달려있었지만 모르는 문자였다. 어느 나라의 것인지도 감이 오지 않아 읽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패를 읽을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중앙관리실이나 제어실 정도의 이름이 붙어있었을 게 틀림없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화면과 여러 개의 조작패널, 용도를 알 수 없는 레버와 버튼이 가득 달린 기계가 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뭐라도 잘못 건드릴세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한참을 패널을 조작하더니 옆의 문이 열렸다.

“이쪽으로 오세요. 옆방에 캡슐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도 아닌 ‘있을 겁니다’라니, 저 애매한 발언에 끝까지 미심쩍었지만 앞서가는 그를 가만히 보다가 뒤따라갔다.

나를 구했다는 캡슐은 작은 유선형의 잠수함 같았다. 검푸른 색의 기묘한 재질로 이루어진 그것은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약한 광택이 흘렀다. 윗부분은 꽤 먼지가 쌓여 회청색으로 보였다. 위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캡슐이 반으로 열렸다. 그는 캡슐의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비밀 금고를 열듯이 한쪽 벽면을 열어젖혔다. 아까 본 것에 비하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조작 장치가 들어있었다.

“채집 캡슐인데 안쪽에 조작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건 비상탈출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허, 실소가 흘렀다. 폐쇄된 연구소의 기밀 하나 지키겠다고 비상탈출용 캡슐을 사용하게 하다니. 그럼 한 번도 안 쓴 채로 이곳에 오랫동안 박혀있던 거라는 소리 아닌가. 그동안 이곳의 첨단기술을 다 보고 지나오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릴 수는 없었다.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건 맞아요?”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확신이 없잖아요! 진짜, 아무 데도 말하지 않고 살 테니까 그냥 평범하게 밖에 내보내 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온 거고, 또 어떻게 나갈 건데요?”

또 말이 없다. 그가 악의적으로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더 짜증이 났다.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차분히 심호흡했다. 머리를 차갑게 식히며 기억을

정리했다. 아무것도 없이 먼지만 쌓여있던 처음 깨어난 방. 이 자의 어색한 말투. 상식을 뛰어넘은 기술. 경험담을 얘기하는 듯한 전시실에서 설명. 개인적 호기심이었던다는 믿을 수 있냐는 질문. 멸종된 생물들이 사는 바다. 나는 의구심을 직접 꺼내놓기로 마음먹었다.

“당신, 인간이 아니죠?”

엘리베이터 안, 그의 먼 추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였다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었을까.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했다. 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층 더 자세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 연구들, 실제로 고생대부터 이뤄진 건가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고 질문했고,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직시한다기보다는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허공을 맴돌던 눈이 다시 내게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결심한 모양이었다.

“이곳은 지구 북위 23도, 동경 151도, 해저 3100미터에 위치한, 금성의 아쿠아스피어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위한 제1연구소입니다.”

“역시 프로젝트 이름 좀 별로지 않아?”

“아직도 신경 써요? 1년쯤 됐으면 그냥 넘어가요.”

“내가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본부에 연락하면서 또 프로젝트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니까 생각나 버렸어.”

물론 가득 찬 행성, 아쿠아스피어. 우리는 항상 아쿠아스피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우리의 행성에는 커다란 바다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날 보고 지으라고 해서는.”

“선배가 이 프로젝트 얼굴마담이니까 그렇죠.”

아쿠아스피어에 여러 번 무인탐사선을 보내고 그곳의 대기조성과 토양의 성분을 조사했음에도 생명체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따른 대기조성변화를 이용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은 것이 내 앞에서 투덜거리며 본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는 발각 뒤집혔고, 몇 번의 유인선을 통한 탐사와 토의 끝에 아쿠아스피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근데 왜 본부에서 답장이 이렇게 느리지?”

“곧 육지 위에 개척용 제2연구소 지을 예정이라잖아요. 바쁘가 보죠.”

이 프로젝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반년에 한 번씩은 물자 조달과 함께 선별된 연구원이 합류했고 지원도 상당해 원래 일하던 연구소에서도 못 써봤던 기술과 특수한 재료들이 시설에 대거 적용되었다.

“아, 답 왔어. 어디 보자…”

빠르게 연락을 훑던 선배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물자 조달이 늦을 것 같다네. 본부 주변 지반이 또 흔들리나 봐.”

“또요? 좀 불안하네요. 괜찮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몇 년째, 대응책도 마련해놨고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그래, 우리의 행성은 몇 년째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을 겪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후 위기와 자원고갈을 말하며 행성 멸망의 전조라고 했다. 이 프로젝트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은 이유도 그 탓이었다. 처음 몇 차례 지진이 도시 몇 개를 쓸어간 뒤,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양생물 연구에서 행성의 개척으로 변경되었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들도 불안했고, 가족이 걱정되었으니까.

그렇기에 팀원들에게 본부의 메시지를 전하자 아니나 다를까 눈에 띄게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선배는 모두를 격려하며 일을 시작하자고 했다. 우울과 불안해 빠질 새도 없이 일에 몰두해야 할 만큼 할 일은 많았다. 그렇게 중압감과 불안, 우울 속에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끝내 본부에서는 반년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우리 돌아가자.”

누가 먼저 꺼낸 말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낯선 환경, 답답한 실내에서의 생활, 거기다 연락이 끊기면서 외부와 단절되어버렸다는 불안감이 불러온 결과였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반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다니 이상하잖아! 뭔가 일이 생긴 거야.”

“……돌아가도 되는 걸까?”

나를 제외한 모두가.

“너, 프로젝트 계획 변경될 때도 반대하더니 또 그래? 넌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만해.”

선배가 나서서 말했다.

“본부에서 연락이 없는 건 이상한 게 맞아. 근데 진짜 만에 하나 큰일이 생겨서 연락이 없는 거면, 돌아간다고 해도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팀장님.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평생 연구만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죽는 게 나아요.”

나는 끝내 돌아가는 우주선에 몸을 신지 않았다. 그런 내 옆에 선배가 있었다. 선배도 가족이 있을 텐데. 중앙제어실에서 나와 인공 아쿠어스피어를 지나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선배를 불렀다.

“.....선배.”

“바다는 내 우주야.”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그가 하려는 말을 알 것 같았다.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인생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어. 바다의 일부만 봐도 아름답지 않아? 저기에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 생겨나겠지. 언젠간 우리보다 더 발전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가 날 똑바로 바라봤다.

“내 선택이야. 널 위한 게 아니라.”

나는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 뒤로 우리는 연구에 집중했다. 개척을 위해 따로 연구하던 것 중 식량의 자급자족에 대한 것이 있는 게 다행이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바다와 그 생물에 대한 것만 다뤘다. 돌아간 동료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남았지만, 이 넓은 연구소에 들만 남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예전의 활발하던 연구소가 겹쳐 보여 후회될 때도 있었다.

“우리 그거 써볼까?”

“그거요?”

“왜, 우주선에 있던 냉동 장치. 개네가 무거워서 내리고 갔잖아. 조금 더 진화한 세계를 보고 싶지 않아?”

선배도 지친 거예요? 그 말을 묻기엔 내가 조금 지쳐있었고, 내가 보기에 선배는 아직 순수한 열정이 남아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몇 천만 년씩 잠들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세계의 변화는 경이로웠다. 흐물거리던 생물들은 척추를 얻었고, 딱딱한 턱을 갖기도 했으며 다리와 날개를 달고 육지로, 하늘로 나아갔다. 새로운 광경에 질릴 만큼 연구를 한 뒤에는

다시 다음의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 잠들었다.

몇 번째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느 날, 내가 깨어났을 때 선배가 없었다. 나는 다급하게 선배를 찾았지만, 연구소의 그 어디에도 없었다. 먼저 일어난 이가 상대의 기계를 조작해 같이 깨어나기로 했었는데, 선배는 먼저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한참 단서를 찾던 나는 비상용 캡슐 하나가 이용되었던 흔적을 발견했다. 연구소 밖으로 나가버린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나도 뒤쫓아 갔을 거다. 그러나 이용 기록은 벌써 그때부터 몇십 년이나 훌쩍 지나버렸음을 알렸다. 선배는 깊은 바닷속에서 바다를 동경하면서도 바다와 단절된 채로 살았다. 그는 바다를 직접 느끼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도 그만 지쳐버린 걸까. 나는 그의 뒤를 이어 혼자 연구를 계속했다. 바다가 내 우주가 될 때까지.

“몇 년 전쯤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그럴 것이다. 인간이 출현한 뒤로,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으니.

“캡슐에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직감했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인간이라 칭하는 이들이 우리와 유사한 게 놀랍더군요.”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멀쩡하게 호홉하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생명 활동 방법도 비슷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우리가 했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으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신생대의 홀로그램은 전부 최근에 만든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전시실에 최근의 자료가 없던 것은 그 탓이었을까.

“그리고 최근에서야 금성에 대한 걸 찾아봤죠. 우리 행성의 결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흐렸다.

“끝내는 게 무섭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이, 우주가 바쳐진 이 자료들을 이곳에 전부 매장해버린다는 것도, 내 삶이 끝난다는 것도.”

나는 전시실과 아쿠아스피어의 여러 부분을 기억해냈다. 잠깐 본 나조차 아깝다고 느끼는 자료들이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방대했다.

“당신이 와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전부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운 주머니에서 작고 네모난 카드 같은 것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연구했던 데이터 자료들의 백업본입니다. 처음에 당신을 보자마자 만들었습니다. 내내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당신도 갖고 싶은 눈치네요.”

내가 처음에 혼자 깨어났던 것이 떠올랐다. 나를 안에 두고 바로 자료를 정리하러 갔던 것일까. 그는 이 자료를 가져가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데이터 칩을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 연구소의 첫 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실 일만 남았네요. 안심하시고 캡슐 안 패널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말을 삼켰다. 그는 말했었다, 전부 결심했다고. 나는 그가 고민한 세월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기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나는 데이터 칩을 안주머니 안에 넣고 캡슐 속으로 들어가 그가 말한 대로 패널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캡슐이 서서히 닫히고, 닫히기 직전의 틈에서 그의 미소를 눈에 담았다. 그는 캡슐이 전부 닫히자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내가 물으려던 말의 대답이라는 듯.

각종 기계음과 함께 캡슐이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주정거장의 해치처럼 툭 튀어나온 곳이었다. 곧이어 해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유리 너머로 천천히 물이 차올랐다. 아쿠아스피어 속을 유영하던 생물이 된 느낌이었다. 해치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는 나오고 나서야 이곳의 심해임을 상기했다. 해저 3100미터. 그제야 살짝 답답해졌다. 그 오래된 건물에서 310기압의 압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니, 나는 이 생각을 하고서야 그들의 기술이 현재의 지구를 아득히 뛰어넘었음을 깨달았다.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언젠간 발명될까. 나는 옷 위로 안주머니 속 칩을 살짝 움켜쥐었다.

캡슐은 직선으로 나아가더니 이내 경로를 틀었다. 덕분에 연구소의 전경을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어둡게 빛나는 둥근 돔을 주위로 들쭉 같은 푸른 전등이 드문 드문 박혀 흐릿하게 모습이 보였다. 내가 나온 해치를 통해 그 안의 빛도 보였다. 아직 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에 나는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며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내가 빠졌던 그 바다로 돌아가 있을 터였다. 감긴 눈꺼풀 위로도 해치에서 나오는 빛은 느껴졌다. 그걸 느끼며 잠에 몸을 내맡기려 했다.

갑자기 눈꺼풀 속의 붉은 빛이 사라지지만 앓았다면 말이다. 나는 밖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밀었다. 벌써 해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온 거라기에는 빛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예상대로 해치는 그대로였다. 다만 그 속의 빛이 꺼졌다. 연구소 외부에 달린 들꽃 같은 등들도 아래부터 차례차례 저버렸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언제나 들려서 있는지도 몰랐던 기계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분명 올라가고 있는데,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미련도 없어 보였던 뒷모습. 끝낼 결심. 나는 유리에서 떨어졌다. 연구소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꼭대기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등에 시선을 고정했다.

연구소의 마지막 빛이 시들었다. 나도 눈을 감았다.